

경제

은행 대출금리 일제히 '들썩'

주택대출금리 9개월來 최고 ... 한달반만에 0.3%p ↑

2금융권 금리도 '고공행진' ... 서민·중소 부담 더 커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저금과 같은 대출 증가 추세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재무구조가 약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한국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CD 금리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9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다수 은행이 연 6%를 넘어섰다.

광주은행의 경우 연 4.42~6.52%로 최고금리가 6%를 넘어섰고 연중 최저치였던 지난 3월 23일에 비해 0.23%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20~6.02%로 최고금리가 6%를 돌파했고 외환은행은 4.92~6.47%로 최고금리가 6.5%에 육박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주 주택대출 금리를 지난주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4.68~6.28%로 고시했다.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반세 0.30%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원인은

은행들의 고금리 CD발행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 CD금리는 24일 현재 2.72%로 지난 9월 이후 11거래일간 0.15%포인트 상승했다. 11개월 만에 가장 기간 상승한 것으로 지난달 5일에 비해서는 한 달 반만에 0.30%포인트 급등했다. CD금리 상승으로 CD금리에 연동된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오르는 등 대출금리 인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CD금리 상승으로 CD금리에 연동된 리드론 금리는 CD연동형이 5.93~8.43%로 지난달 6일보다 0.71%포인트 급등했고, 광주은행의 직장인신용대출도 6.42~8.6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은행권 대출규모는 30조6천202억 원으로 통상 CD금리와 연동된 대출

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0.3%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천 53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2.8% 수준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2금융권 조달 비중이 높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연평균 5% 안팎의 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 한은의 기준금리까지 오른다면 이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60%의 경우 금리가 올랐을 때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bungy@kwangju.co.kr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식품안전성이 높은 웰빙과일 무화과를 선보였다. 무화과는 병충해에 강해 농약을 하지 않는 등 자연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이전 약속 기관 부지매입 본계약 체결 '차일피일' 토공, 혁신도시 속얇이

한국토지공사가 맡았을 속얇이를 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이전 대상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3월 이전부지(1만8천757㎡)에 대한 사전예약을 체결한 뒤 본 계약을 맺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여저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당시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사전예약금 명목으로 매입금액 84억8천900만원의 10%를 토공에 납부하면서 '7월 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토공은 부지 매입이 전국 157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처우가 가장 낮은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부지 매입이 미온적인 것으로 비춰질 경우 이후 진행될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일반주택용지 등의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체결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유통공사측에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선도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앞서 가는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본 계약 체결 시기도 한전의 계약 체결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토공 광주전남본부측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전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혁신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이전만 촉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소 대출보증 비중 6%로 축소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대출보증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주최 '한국자산운용대회'의 기조연설에서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이지만 위기 직전인 6%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3%까지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를 하는 배경에 대해 "대기업들은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였지만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에서 제외됐으며 이제는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벗어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선 "해의 주식펀드에 대해 한 해 지를 100%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트럭·버스용 신제품 설명회

금호타이어는 24일 오후 광주공장에서 '2009년 트럭·버스용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고속버스용 및 대형덤프용, 시외버스용 등 3종류 신제품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호남권 등 전국 주요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 판매 촉진 활동으로, 전국 6개 지역별로 이틀동안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출시된 고속버스용 KRA33(전륜)의 경우 기존 승용차용 타이어에 적용했던 비대칭 패턴을 대형 타이어

에 최초로 적용하여, 고속 주행 안정성 및 마일리지를 크게 향상시킨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150여대의 차량에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고 타이어 한쪽면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대형덤프 전륜용인 KRS24는 넓은 접지면을 보유하면서 사이드부위를 보완하는 프로파일러를 적용했다. 이외 주행 안정성이 향상된 시외버스용을 위한 신제품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삼성전자 빌트인 냉장고 'TBI' 출시

삼성전자는 지열 양문형 냉장고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빌트인 냉장고 신제품 TBI(True Built In)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은 불필요한 장식을 줄여 미니멀리즘 디자인 요소를 강조했고, 일반 양문형 냉장고보다 20cm가량 깊이가 얕아 주방 가구와 선이 일치하도록 설계했다. 냉장고 앞부분에는 식품관리, 요리

법, 추천식단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7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있다. 디지털 액자로도 활용 가능하다. 지열 냉장고의 독립냉각 수분케어 기술과 채소 잔류 농약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채용해 식품 보관 기능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647L, 672L, 765L 세 가지 용량이 있고, 출고가는 400만~700만 원 선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토지주택공 광주전남본부 '상무시대' 내달 1일부터 옛 주공사옥서 집무 시작

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 1일 공식통합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이날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주택공사 지역본부 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4일 "옛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사옥을 통합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

측 인력은 25일부터 사흘간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하게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또 25일 부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을 비롯, 토공 광주전남본부(94명)와 주공(202명) 등에 대한 인사 및 조직 개편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초대 사장 내정자는 앞서 통합공사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우선 전체 직원 7천367명 가운데 1천767명(24%)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93.88 (-17.59) 코스닥지수 518.77 (-10.21) 금리 (국고채 3년) 4.44% (-0.03) 원·달러 환율 1,195.70원 (+1.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고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해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빌딩(대형)임대 및 매매.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수완지구 전지역. 수익성 빌딩 및 사옥 중개. 매수 및 매도. 전화상담 환영. (유)코리아랜드 959-1033, 010-7723-1033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